

「PAN KOREA」(18,000 噸 多目的荷物船)의 발랄한 進水

「大韓造船」技術陣의 凱歌 波濤에 실려 五大洋에 메아리!

韓國最初로 18,000톤짜리 荷物船이 釜山앞바다에서 지난 6月 15日 進水함으로써 부산부두는 온통 祝祭무드에 젖었다.

처음으로 試圖된 이 多目的 荷物船이 呱呱의 高동소리를 울리기 까지 무려 240여일의 긴 陣痛을 겪었으며 이에 動員된 人員만도 10萬名이 넘는다니 하루 평균 300명이 이 맘모스 배에 매달렸다는 計算이다.

그러나 아직 시운전과 船紐協會의 檢사를 마쳐려면 몇달이 더 걸려야 한다니 1年이 넘는 歲月이 흘러야 겨우 제구실을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에 所屬되는 豫算도 엄청나다. 卽 14억원이나 든다는 것이며 이를 地上의 콘크리트 建物로 換算하면 坪當 10萬원씩 따져 14,000坪의 建物를 지을 수 있으니 100坪地위에 140層의 摩天樓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이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는 造船事業은 한 個人의

資本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며 國家의 絶對的인 支援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結論이다

따라서 이번 造船의 경우도 例外일수 없이 政府의 80%용자에 의한 것이며 이는 造船工業振興法에 依據 造船資金으로 産業銀行에서 支給됐다고 船舶營業部의 崔俊基課長은 說明한다

또한 崔課長은 建造作業이 길어진 理由를 우리나라에서 製作할 수 없는 機械, 例를 들어 8,400馬力짜리 엔진을 外國에 發注해야 했으며 이런 機械製作들이 늦어진데 原因이 있다는 것이다. 또 可及의이면 國產資材를 쓸려고 했지만 價格關係로 不得已 外製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苦衷을 털어놓기도 한다.

이번 18,000톤짜리 建造로서 自信을 얻은 大韓造船公社는 5月 15日 竣工式과 더불어 20,000톤 짜리 유조선 起工式을 아울러 갖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陟外를 담당하고 있는 姜洪允氏는 밝은 來日의 展望을 數値로 表示하는데 氣념을 바친다.

선박수출현황

| 선형 | 선종 | 척수 | 척당선가 | 수출액 | 수출국 | 선박인도일 | |
|-----|-----------|-----|------|------------|------------|---------------|--------|
| 실적 | 350D/W | 바지 | 15 | \$ 138,000 | 월남 자유중국 | 67. 10 | |
| | 320G/T | 어선 | 20 | \$ 307,000 | | \$ 6,140,000 | 69. 12 |
| 건조중 | 20,000P/W | 유조선 | 2 | 7,050,000 | 14,100,000 | 미국(Gulf) | 73. 8 |
| | 20,000D/W | // | 2 | 7,300,000 | 14,600,000 | // | 74. 3 |
| | 30,000D/W | // | 2 | 8,500,000 | 17,000,000 | // | 74. 6 |
| | 300G/T | 어선 | 4 | 555,000 | 2,220,000 | 미국(Del Monte) | 73. 4 |

以上 數表에서 長足の 發展을 거듭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昨年까지만 해도 不實企業體로 指目받던 처지였으니 그간 大韓造船이 얼마나 逆境에 시달렸겠는가 짐작이 간다.

멀지않아 60,000톤 짜리 화물선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爲해 現在 선거시설 擴張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까닭인즉 60,000톤짜리 荷物船 需要가 急增하고 있는 世界的 추이에 대비한 것이며 絶對量이 不足한 狀況에 있는 世界海運界 動向에 銳敏한 關心을 보이고 있다.

이제 겨우 10年(1962.6.4 國營으로 發足)의 歷史를 지닌 大韓造船公社가 몇百年의 歷史를 가진 外國造船會社와 實力을 겨누려고 발돋움 하는 모습은 壯하기만 하다.

이번에 18,000톤짜리 多目的 荷物船을 無難히 完成한 것은 全社員이 一系不亂하게 職分을 다한데 있다면서 어느한사람의 功勞를 내세우기를 꺼려하는 崔課長은 이야말로 綜合組立技術의 凱歌가 아니겠느냐고 反問하면서 하루빨리 汎洋專用船株式會社(社長 朴健頌)에 모든 檢査를 끝마치고 배를 引繼하고 싶다고 말한다.

발랄한 大韓造船公社의 氣象이 그대로 담겼을 이 배가 五大洋에 太極旗를 휘날리며 運行할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니 장마를 앞둔 7월의 무더위가 싹 가지는 듯하다.

生氣에 찬 大韓造船 그것은 곧 韓國의 命脈의 躍動이 아닐까



<現況을 說明하는 崔俊基 課長>